

참된 제사와 믿음의 절대망대를 세운 히브리서 -복음으로 여는 히브리서-

이사야 1:11-12, 히브리서 10:11-14

정운돈 목사님

- * **사1:11-1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 * **히10:11-14**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주만물과 천하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이 땅에 전 인류가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이 빠지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얻으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 후대,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 가문, 후대, 교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몰랐을 때는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운동도 공부도 건강관리도 어떤 사업과 일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 후대,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노예,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절대망대를 세웠고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모두 그 언약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믿음이 있을 때 미래가 미리 보이게 된다. 찾는 것이 아니다. 보이니까 쉬운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있는 어려움은 다 허상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 램네프들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요셉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지금 나를 포로로, 문제로 주셨지만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분명히 있어.’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사업도, 일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도 수없이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천 가지의 소재를 실험한 후에 텅스텐 필라멘트가 진공 전구 안에서 장기간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전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그냥 흘려 넘겼지만 발명이 에디슨의 입

장에서는 ‘더 긴 시간 켜질 수 있다면 가치가 있겠구나.’하고 연구를 한 것이다. 램네프와 여러분에게도 이 발견이 있기를 축원드리겠다. 그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노력이 아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봤는데, 기도를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가치를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상가문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당대 믿는 사람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이삭은 큰일을 하지 않았지만 100 배의 응답을 얻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응답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에 우리 교단과 우리 참사랑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나의 영광과 혼을 지키고 나의 뜻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선교,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뜻을 정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작은 것도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70 나라 가보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30 명 영접해야겠다. 내가 다락방을 해야겠다.’ 마음먹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 결단이 필요하고 망대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에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분야에 나의 망대를 세우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 증거 할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도 로마의 핍박과 교리적인 도전이 있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핍박,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복음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구약성경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냥 우리에게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았을 때, 이해가 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의 핍박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1. 첫 번째에서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교리, 제사, 예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히브리서 1 장 4 절부터 14 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고 있다. 1 장 5 절을 함께 보겠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한 1 장 14 절에서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천사동원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을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로 받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상위 하나님이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3 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히브리서 3 장 3 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유대인들은 참된 안식일과 안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사자 굴속에 들어가도, 순교의 입장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살탐’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 장 3 절 앞부분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4 장 10 절에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돈을 벌어도 어려워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안식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두 번째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참된 제사와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첫째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예배,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진짜 참 제사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국에 많은 교회, 신학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선포도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같다. 그 위치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이다. 내가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이다. 히브리서 2장 9절 중간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3)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2장 17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기를 바란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회개하면 된다.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거듭나게 된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 제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이다. 다시 한 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4) 네 번째로 복음시대의 진정한 예배는 매일 현장에서 드러지는 다락방과 지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다락방이며 지교회이다. 그리고 그 날,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구마다 5인 1조 70현장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이것이 70 땅대이다.

(5)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하여 구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재해석 해주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은 어렵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언약, 미래에 대한 나의 축복, 후대에 대한 축복, 민족에 대한 축복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허상을 보지 않고 실상으로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노예, 포로, 속국이 몇 천 년이 넘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반드시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을 것은 실상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흠과 티가 없도록 절대목표를 향해서 가야하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보면 거듭나게 된다. 12장 2절에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기를 바란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 인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외로워진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면 내 편 만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 뿐이다. 12장 5절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한다. 자녀들은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한다. 말이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신다.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12장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망명된 자들이 없도록 살피라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절대목표를 주신 것이다. 우리들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결론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하고자 한다.

1. Covenant(커버넌트), 미리보기, 절대주권이다. 우리들은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미리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다.
 2. Vision(비전), 미리갓기, 절대계획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히브리서 저자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미리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3. Dream(드림), 미리누림, 절대언약이다. 만약 우리들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절대언약을 24시간 미리 누린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이미지), 미리정복, 절대여정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여정을 조금만 묵상해도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미리성취, 절대목표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진도와 237 선교라는 절대목표를 붙잡는다면 미리 성취되는 하나님의 작품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진도운동을 통하여 복음과 그리스도의 절대가치를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절대언약의 말씀과 절대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